

성 창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점을 통한 생명 순환의 이미지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은 화

점을 통한 생명 순환의 이미지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성 창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은 화

인 준 서

김은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변화한다. 자연도 변화하고 그 속의 인간도 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간다. 자연과 인간의 생명은 대자연 전체와 함께 움직이며, 스스로 생성과 소멸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순환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생명체란 우주자체의 거대한 유기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동시에 전체의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속성을 생성과 소멸이라 파악하였다. 생명체의 속성을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본인 머리속에 존재하는 생명의 이미지를 우주현상에서 찾아오며, 자연계에서 점은 가능성이 충만한,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는 조형요소로 순환성을 표현하였다. 자연의 형태들은 실제로는 조그만 공간체이며, 크거나 작거나 간에 결국 이것은 점으로 창조된 것이다. 가장 작고 자체 내에 폐쇄된, 순수하게 원심적인 형상들, 그 모습은 사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느슨한 관계에 놓여 있는 점으로 보인다.

영원할 것 같은 별도 때가 되면 폭발하면서 최후를 맞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폭발 후 남은 잔해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가스들은 새로운 별의 원천이 된다. ‘끝이 또 다른 시작’이란 진리는 광활한 우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인은 별의 폭발 후 잔해들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주목 하였고, 그러한 순환이미지를 반복되는 점, 별자리를 연결해주는 선으로 별의 폭발과 탄생, 별자리, 블랙홀 등 여러 가지 우주 현상들을 점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고대의 별그림에서도

점으로 별을 나타냈다.

4차원적 우주를 평면에 나타남에 있어 점이라는 조형요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볼 수 있었으며, 선인들이 하늘에 대한 믿음에서 표현되어진 옛 별그림을 볼 수 있는 무덤의 벽화, 고인돌, 천문도등 에서 본인이 추구해 가야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생명의 순환.....	3
2. 점의 의미.....	10
3. 우리나라 역사 속 별 그림.....	19
III. 작품 제작 및 분석.....	27
IV. 결 론.....	40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 론

미술과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가시화함으로써 미래를 예견했으며 사회의 앞길을 밝혀왔고 화가는 그 시대의 미감을 이끌어 왔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원자의 핵을 꿰뚫었으며, 우주의 변방까지도 탐험하고 있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발견에 열중하고 있으며, 미시세계 중간자, 중핵자 반입자 등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작은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한히 큰 우주가 급속히 생겨났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그 규모에서 끊임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연구는 상호 관련이 있으며 모두 인간 지식의 거대한 확장을 약속해준다. 이러한 지식은 수없이 많은 분야에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미래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줄지 아니면 불행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는 없다.¹⁾

본인은 생명의 원동력 과 자연의 미묘한 질서를 발견하려 하였고, 이것은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생성과정을 알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의 실체를 우주에서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화두로서 거대한 자연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우주에 속해있는 크고 작은 별들의 폭발과 탄생의 순환에서 점이란 요소를 찾아냈다.

표현 방법에서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 순환적 이미지를 회화라는 매체로 풀어가면서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자연의 순환적 추상

1) 김명진, 확장된 점을 통한 생성-소멸의 이미지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적 이미지를 무수히 많은 반복되는 점을 통하여 표현한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고, 생명의 순환성을 인간과 별을 통해 살펴보고, 역사속 별그림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우주현상을 회화적 공간으로 표현하는 본인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은 창작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우주와 그것을 토대로 한 회화의 기호적 특성에 대해 생성과 소멸이라는 추상적 명제에서 생성은 점으로, 소멸은 회화적 공간으로 수용하였으며, 존재의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보적 관계성에 의하여 세계는 있어왔고 또한, 계속되어 질 것임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식의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바란다.

II 본 론

1. 생명의 순환

생명은 ‘목숨, 사물을 유지하는 기간, 사물의 중요한 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세포 상호간의 활동에 의한 생물의 생활현상 일체에서 추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보통 생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개체 내의 생명을 의미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개체·기관·조직·세포 등의 생물체의 구성단위도 생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과학적·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명 현상은 복잡한 유기체 내의 특수한 에너지 계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다.²⁾

순환은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한다.”, 혹은 생물학적 용어로써 “피나 노폐물이 혈관을 통해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순환은 하나의 개체가 생성되면서 자연 발생적인 변화를 일으킨 후 다시 본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세계는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한다. 자연도 변화하고 그 일부인 인간도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간다. 끝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 세계 안에서 삶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변화가 늘 닳은 것은 그로인해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수용할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반면 그것은 더 빨리 수용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 세계도 쉴 새 없이 순환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분과 초로 계속해서 극한까지 나뉘지

2)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카톨릭대사전 7권, p.4249

는 시간과는 다르다. 자연의 순환적 시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는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 것이다. 자연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시간 인식은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자연공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침묵하는 세계가 아니다. 자연 속의 모든 존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또 죽어 가는 변화무쌍한 세계로 끊임없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연 속에서 갖는 시간 경험이 인간의 내면적 인식으로 전이될 때 생기는 작은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다. 바람에 날리며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 달리는 차안에서 보는 빗방울의 떨어지는 소리, 별뿔별이 떨어지는 순간의 소리 등 아주 짧은 시간 경험이지만 그 돌발적 성격이 갖는 강렬함은 경험되어진 그 순간을 심미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모든 생명은 대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며, 여기에는 스스로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힘의 변화가 있다. 생성·성장·소멸을 거치면서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순환을 한다.

생명의 시작인 생성은 순환의 첫 단계이며 소멸로부터 이어지는 재구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철학적 의미로써 생성은 비존재가 존재로 되는 과정을 말한다. 생성 다음 단계인 성장은 자연 발생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생명력을 보존 시켜나가는 순환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소멸 과정은 성장에서 진행되었던 변화와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단계인데,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움직임을 있는 변화의 한 부분으로써 순환을 지속시켜

주는 시작이다.

생성과 소멸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축이다. 생성은 곧 소멸을 의미하고 소멸은 생성을 잉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구분 짓지 않는다. 또한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일정해서 결코 더 이상 조성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으며 변화하는 것은 형태일 뿐이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³⁾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은 이 법칙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을 던지게 된다. 죽음 이후에 나타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화가의 작품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 후에도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남아 있을 또 하나의 자신인 것이며, 모든 기의 압축이라 볼 수 있다.

별도 죽는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별도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는다. 마지막을 앞둔 별은 자꾸만 부풀어 올라 원래보다 지름이 100배 이상으로 커진다. 그러나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만다. 밤하늘에 불꽃놀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끝으로 별은 사라지고 만다.

별은 그 질량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죽음을 맞는다.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별들은 마지막을 앞두면 부풀어 올라 적색 거성(red giant)이 된다. 붉은 색을 띤 슈퍼 거인별이 되는 것이다. 적색 거성의 겉 표면은 잔뜩 팽창됐기 때문에 연약해진 반면, 중심부는 무거운 물질들로 강하게 수축돼 원래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따라서 폭발하면 껍질 부분은 외부로 날아가 버리지만 중심 부분은 충격을 견디고 남아있게 된다. 이

3) 에너지 보존의 법칙 : 우주에 있어서의 물질과 에너지의 총화는 일정하며, 결코 더 이상 조성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으며, 또한 변화하는 것은 형태뿐이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것이 작고 어두운 백색 왜성(white dwarf)이다.

태양도 50억년 후면 점점 부풀어 올라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지구까지 녹여버린 뒤 폭발할 것이다. 그 후 백색 왜성의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져갈 운명을 안고 있다. 태양 질량보다 8배 이상 큰 별들은 다른 최후를 맞는다. 거대한 별들 역시 잔뜩 부풀어 올라 폭발하는데, 이를 초신성(超新星supernova)⁴⁾폭발이라고 한다. 이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태양이 100억년 동안 내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평소 보이지 않던 밝은 별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 것처럼 보인다. 마치 새로운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폭발의 와중에서도 초신성 중심부의 강한 물질들은 우주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뭉쳐서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아주 강하고 무거운 물질들로 단단히 결합돼 있는데, 팽창과 폭발을 거치면서 엄청난 중력으로 더욱 작게 오그라든다. 크기는 줄어든 대신 질량이 엄지손톱 크기가 10억 톤을 넘는다.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진 후 남아있는 부분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 되면 중성자별 단계를 넘어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 된다. 이곳에서는 손톱 하나 크기의 질량이 지구 전체 질량과 맞먹는다. 이처럼 엄청나게 큰 중력 때문에 모든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심지어 시공간이 휘고 빛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은 캄캄한 암흑의 공간만이 펼쳐질 뿐이다.

초신성 폭발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흩어진 것들은 성간 물질들과 반응해 거대한 가스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잔해

4) 초신성(超新星, supernova) : 격렬하게 폭발한 뒤 광도(光度)가 평상시에 비해 수십만에서 수억 배까지 순식간에 증가하는 별

가스'이다.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 1호에 의해 관측된 돛자리 초신성 잔해 가스는 약 1만 년 전에 발생한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다. 폭발 초기 100만℃ 이상의 고온 상태인 초신성잔해 가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 새로운 별을 만드는데 다시 쓰인다. 죽은 별의 잔해에서 다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생명의 순환성이 적용된다.

우주 안에 에너지들은 현상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지만 외견상의 차이일 뿐 잠재된 바는 같다고 본다. 순환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과 소멸에만 국한시킬 영역이 아니나, 하나의 현상 뒤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 현상이 존재한다. 탄생과 죽음, 개화와 낙화, 솟음과 꺼짐 들의 수축되거나 확산되는 리듬과 순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서로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준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과 결과가 따르는 인과적 과정으로 해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주는 회전하며 끊임없는 변화운동을 하고 있고, 우주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circulation)함으로써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순환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 몸속의 피의 순환, 호흡의 순환, 밤낮의 순환, 사계절의 순환 등 그 주기성이 짧고 긴 차이는 있을지언정 만물은 순환 속에서 변화하고 또 존재한다. 즉 만물과 생명 심지어 문명의 역사까지도 모두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 순환하는 환경의 영향 속에서 변화의 영속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구는 순환(자전)함으로써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는 4가지 시간대를 창조 한다. 지구가 스스로 순환(자전)하며, 태양을 완전히 한

바퀴 순환(공전)하면 더 큰 시간의 주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변화를 빚어낸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환변화원리 속에 우리 은하계가 순환하면서, 더 큰 시간대인 우주의 계절, 즉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주 창조 일주기(Cosmic Year:宇宙年)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식물은 물론이고 미물, 곤충들까지도 한시도 쉬지 않고 변화해가는 시간대에 따른 환경과 질서의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일생에도 태어나고 성장하는 소년기와 청년기가 있으며,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는 중년기가 있으며, 늙어 죽어가는 노년기가 있는 것이다. 인류문명도 순환원리에 영향을 받는다. 문명이란 하루 하루의 삶의 발자취가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역사의 유물이고, 지구환경의 변화, 날씨, 질병 등 인류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는 순환주기가 모여서 일년의 순환주기를 만들고, 일년의 순환주기가 모여서 우주년의 순환주기를 만들고, 인류의 삶이 쌓여서 역사와 문명의 순환주기를 만든다.

현대과학을 통한 생명이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우주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과학은 생명이 출현하기 수십억 년 전 물리적 우주가 생명과 의식을 갖는 존재를 만들려는 놀라운 경향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우주는 이미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기 훨씬 오래 전 우주의 조건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 이해는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주장들을 철저히 배격한다. 이와 같은 우주와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의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하면 할수록, 우주의 개개 구성요소와 다

른 구성요소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⁵⁾

자연을 이루는 요소로서의 인간은 육체적 생물체이다. 우리는 자연의 부속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고와 행동의 대상으로 만드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물과 환경, 그 속에서 순환의 질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화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순환적 질서와 함께 호흡해야 회화적 표현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작품이 특정한 시간과 상황 속에 속하고 시간에 따라 흩어지고 소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론적인 질서에 의해 작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작품이 자연의 생산력과 그 시간적 과정을 겪은 구체적인 표상인 동시에 인공적인 산물과 자연물이 함께하는 현대적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 재료와 의미가 함축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유기적 물질이 그렇듯이 살아있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로 이어지고 다시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순환성을 본질로 별의 폭발, 블랙홀, 별의 생성 우주의 현상들로 대자연의 변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우주의 역동성을 묘사 하고자 했다.

예술가들은 생명체의 변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명의 형태 연구를 많이 해 왔다. 이러한 생명력의 표현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초기의 원시 미술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생명력의 표현이 시작되던 것이 점차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대상에서 독립하여 생명의 힘으로써 작품에 내포된 에너지로 나타나게 된다. 작가는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5) 맹연선, “과학적 생명 이해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신학전망」 143호, 광주 카톨릭대학교, 2003p.50

끊임없이 사고하고 상상한다. 그리하여 그 사물의 진정한 내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여 진면모를 추구하며, 상상의 세계를 펼쳐 나가는 것이다.

2. 점의 의미

점은 원천적인 조형요소이며, 기하학에서의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따라서 개념상 이것은 비물질적인 본질이라고 정의되어야겠다. 물질적으로 생각 할 때 점은 제로(Zero)와 같다. 제로는 기호학적 측면에서 보면 라틴어의 Origo의 약자인데, 즉 “최초”, “근원”의 의미로서 회화의 입장과 일치한다. 상징적으로 점은 “최초의 요소”로 불리고 있다.

다른 조형 요소들의 특성과 같이, 점도 하나의 언어이지만 그것은 침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점은 내면적으로 억제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점은 내적으로 가장 간결한 형태이고, 그것의 긴장은 언제나 중심 집중적이다.⁶⁾

하나의 점 자체이고 연결된 점은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지며, 반복과 중첩으로 하나의 면에 나타내는 커다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점의 크기와 형태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변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최소의 기본 형태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최소의 형태가 어떤 것이라고 한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점은 면으로 변할 수도 있으

6) 점·선·면, W.칸딘스키, 차봉희(역), p.24, 1987

며, 평면을 덮을 수도 있다. 점과 면의 한계는 어디에 둘 것인가. 점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지어 지며, 점은 정지, 함축성, 상징성, 침묵 등의 성격과 주변과 상대적이다. 표현 언어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무한히 다양한 형상을 취할 수 있다.

점은 하나의 조그만 세계이다. 이것은 사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거의 빠져나와 있다. 점과 그 주위와의 융합은 최소한의 것으로 극명하고, 점이 가장 최고로 완성된 경우에 이 융합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점은 그 위치에서 확고히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평 수직 어느 방향으로의 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나서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도 전제되어있지 않다.

미술의 역사는 그림이란 무엇인가 하는 탐구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계의 재현으로 시작하여 모리스 드니의⁷⁾ 색면으로 덮여진 공간, 인상파의 순수 가시성의 분석, 입체파의 시각의 탐구, 미술은 형태, 색채, 질감, 화면의 크기, 테마의 크기 및 넓이 등 추상적 요소로 성립되고 양식도 주로 이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추상미술 등으로 변해 왔으며, 이는 그림이란 존재의 규명을 하기 위한 최소단위에 대한 물음들 이었다.

양자물리학은 물질계에 대한 규명을 최소 단위에 대한 명확성을 찾아가

7)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1870~1943)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는 나비 그룹의 창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의 이론적 지도자이며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림은 그것이 전쟁터의 말이나 누드의 여인, 또는 일화적인 것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일정한 질서에 따라 조합된 색채로 뒤덮인 평면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는 과학이다. 물질을 계속 쪼개어서 쪼갤 수 없는 최소단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 된 우주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 학문이다.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최소한의 입자는 분자→원자(전자)→중성자(양성자)→쿼크의 단계까지 와 있으며, 물질의 궁극적 모습을 찾으려는 종래 물질의 명확성을 찾아가려는 시도가 ‘무한역행의 시도’(無限逆行, infinite regress)임을 자각하였다. 이미 전자부터는 입자 즉, 물질의 개념을 벗어나 버린 상태이다. 물질계를 벗어난 존재이면서 비존재라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 것이다.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확정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원리다. 그것은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자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면 그 운동량이 확정되지 않고, 그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측정값을 제약하는 이른바 상보적(相補的) 물리량은 양자 역학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불확정성 원리는 물리학이 궁극적으로 물질에 대하여 통계적 예측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상을 측정하려고 대상에 작용한 결과, 대상의 ‘본래의 모습’을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재를 관찰하려는 우리 자신이 그 관찰된 실재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주체(主體)가 대상(對象)을 관찰한다.’ 는 근대 철학과 고전 물리학은 해체되었다. 니체의 말대로 주체는 없었으며, 대상과 분리되어 대상을 측정하려는 ‘주체의 환상’만 있었을 뿐이다.

미술에 있어서도 작품이란 것이 실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결론이 되며

작품이 관람자에게 던지는 질문의 동기와 의도를 알아야 하며, 질문의 동기에 따라 답이 바뀐다는 점은, 불확정성원리⁸⁾에서 측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측정을 선택하느냐는 주관적인 마음에 달린 문제이며, 그것은 다시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의 문제이다. 이 동기에 따라 제작된 작품은 달라지며, 즉 고정된 실체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만 가진 유동적이고 주관적 세계를 인식할 뿐인 것이다.

14세기의 티벳 승려 롱첸파(Longchenpa)⁹⁾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것은 환상일 따름일지니,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선과 악에 관계없고, 받아들임과 버림도 없고, 오직 웃음만 나오는 구나”

화면안의 점들은 실재하지 않는 주체의 환상인 것이며 이를 회화적 요소로서 끌어 들임으로 인하여 나의 작품은 이미지의 환상으로 고정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며 방향성만 가진 점이며 ‘이것’과 ‘저것’은 더 이상 분리된 실체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모두 똑같은 것의 다른 ‘형태’이다. 모든 것은 표상(表象)이다. “무엇의 표상인가?”와 같은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무엇’이란 것은 언어, 개념, 형태, 심지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나의 화면에서 점은 시각적 존재,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본질이라는 것은 없음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점인 것이다. 작품 속 점의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

8) 불확정성원리 (不確定性原理, uncertainty principle) : 양자 역학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에너지와 시간 따위와 같이 서로 관계가 있는 한 쌍의 물리량에 대하여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관측하여 정확하게 측정, 결정할 수는 없다는 설. 두 개의 측정값의 불확정성의 곱은 플랑크 상수(Planck常數)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불확정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1927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Heisenberg, W.K.)가 세웠다.

9) 롱첸파(Longchenpa, 1308-63) : 14세기 티벳의 불교종 닝마파의 독보적인 승려

다. 거시 이미지와 미시 이미지로서의 복합이미지 기능을 하고 있다.

미시세계 : 소립자-(원자핵)-원자-분자-고분자-세포네소기관-세포-사람

거시세계 : 별(태양)-(은하핵)-은하-은하군-은하단-초은하단-우주-거대한존재

거시적 점으로서의 이미지는 우주를 뜻한다 하였다. 지금부터 약 150억 년전 무한히 뜨거운 한 점에서 출발한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처음 약 3분 사이에 우주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고, 약 50만년 정도까지는 이들 원소와 빛이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4000도로 떨어지면서 보통의 물질인 빛은 자유로운 파동으로 우주에 퍼져 다니게 되었다. 우주 전역에 고르게 분포된 수소와 헬륨은 그 후 원자들이 되고, 긴 역사를 통하여 중력에 의해 은하와 별을 만들었고, 별은 수소와 헬륨을 태우면서 진화되어 탄소, 산소, 철 등의 원소를 생성했고, 지구는 이러한 별이 생성한 물질로부터 만들어 졌다.¹⁰⁾

이러한 대폭발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며 이 이론 역시 언제 부정될지 모르는 운명에 놓여 있다. 다른 이론들 중에 '정상 우주론'으로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과거나 미래나 그 모습이 현재와 다름없다는 태초와 종말이라는 특이점이 없는 이론이며 끊임없이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우주 자체는 유한 할 지라도 그에 관한 이론은 끝없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니까.

우주는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나의 화면에서 배경은 우주의 무수

10)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소광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39~40

히 많은 점으로 나타낸 별들, 은하계의 모습이 이미지화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주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며 생성과 소멸이 공존하는 장(場)인 것이다.

우주가 프랙탈 구조로 수직적으로 연속되며 프랙탈의 각 단계 사이의 배율은 대략 (10의 30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우주가 한 개의 입자에 불과한 거대한 존재는 사람의 키보다 (10의 30승)배나 크고, 사람은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살고 있을 아주 작은 존재보다 (10의 30승)배 더 큰 것이다. 프랙탈 우주론¹¹⁾에 의하면 우주는 그것이 비록 하나의 세포이지만 우리 자신의 거대한 존재 내부의 미시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속 또 다른 미시세계에 살고 있을 작은 존재들은 우리의 세포를 그들의 계산으로 반지름 150억 광년의 거대한 우주로 여기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주가 포함된 거대한 존재가 무엇일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대한 존재의 세포 속에 살고 있어 그 존재의 전체를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 훗날 천문학자들이 우주 속에 분포된 모든 은하들의 완벽한 3차원 지도를 그려 낼 수만 있다면 DNA에 해당되는 초은하단을 분석하여 그 정체를 알아낼

11) 프랙탈구조 : 프랙탈(fractal)이란 말은 라틴어 fractus (부서진 상태를 뜻함)에서 유래되었는데, 1975년 만델브로트(Mandelbrot)가 수학 및 자연계의 비정규적 패턴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담은 자신의 에세이에 표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프랙탈은, 미분이 가능하며 정규적 모양을 지닌 유클리드 기하체와는 달리, 비규칙적으로 갈라진 구조를 가진다. 그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의 모습과 비슷한 구조가 다시 나타난다. 이것을 자기 유사성이라 한다. 프랙탈은 분자부터 천문학적 단위까지 모든 척도의 자연계의 현상에서 나타난다. 그 예를 들면, 해안선 및 지표면의 구조, 번개의 궤적, 눈의 결정 모양, 전기의 방전 현상, 주식시장의 불규칙적 등락을 나타내는 곡선, 유체의 난류 현상(turbulence), 우주 은하계의 분포 등이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그 거대한 존재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 두자

점과 원의 차이는 채워져 있음과 비어 있음에 그 형태적 해석이 다르지만 이미 존재의 입자는 비어있음이 밝혀져 있듯이 점은 원인 것이다. 원은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전체성, 완전성, 동시성, 근원(根源)을 뜻한다. 원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신성한 것이다. 원은 점으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그 자체는 원점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무한으로 확산되려는 힘에 의해 자기충족, 영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성을 나타낸다.

원은 원형과 구형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소멸시키지만, 회귀도 의미한다. 원은 하늘의 통일성, 태양의 순환, 모든 원형 운동, 완성, 성취 신을 상징한다. 플라톤주의¹²⁾에서 원은 ‘움직이지 않는 영원의 움직이는 모습’이다. 불교의 원은 현상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의 수레바퀴를 뜻한다. 선(禪)에서 비어 있는 원은 깨달음을 상징한다. 중국에서는 사각형은 대지, 원은 하늘을 뜻한다. 중심에 사각형이 있는 원의 형태는 하늘과 땅 음과 양의 통합을 상징하며 그래서 군자를 의미한다. 그것은 대지라는 움직이지 않는 사각형의 둘레를 도는 움직이는 하늘이기도 하다. 도교에서 중심에 점이 있는 원형의 태극은 지고의 영적 존재, 즉 도(道)

12) 플라톤주의[- 主義, Platonism] : 플라톤주의라는 용어는 그들 철학의 결정적인 동기를 플라톤으로부터 이어받은 어떤 철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플라톤주의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플라톤의 <대화편>이 인간의 윤리적 삶에 대한 강렬한 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관심은 변화하는 감각적 사물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불변적이고 영원한 실재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플라톤주의는 이러한 실재들이 우주 속에 현존하는 모든 사물들의 원인이자, 동시에 그것들의 내용, 특히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 속에 뿌리박고 있는 절대적 가치들에 대한 믿음이 바로 플라톤주의를 다른 철학들과 구별 짓게 하는 차이점이다

이다.¹³⁾

점은 궁극의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있어 만국 공통어처럼 쓰이는 것은 우주의 기본적 구조에 있음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구조를 해체 나가다 보면 원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을 시각적인 형으로 그려나갈 경우에도 원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자이하의 소립자에 대하여 인간의 시각으로 관찰 되어진 것이 없다. 그것들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가상의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원이라는 형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대한 우주의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해와 달 기타 별들의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원은 아주 적절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무(無)로 이해되는 우주공간은 기로 가득 차 있으며, 기는 떠돌아 흐르다가 만물을 파생시킨다. 기가 모이면 실체가 되고, 실체의 기가 흩어지면 그 사물은 없어져 다시 우주의 기가 된다.

불교의 연기론에서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기본적 주장은 모든 사물과 변화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다른 존재가 없이 홀로 있거나 홀로 규정되는 사물이 없다는 뜻이고, 나의 작업 속에서 보여 지는 시각적인 요소들의 존재 조건이 되는 것이다. 점들은 나의 인식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과정과 감정의 반응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존재는 단순히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상을 분별하며, 이어나가고 기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 안에서 각 의미를 부여한 점들은 또 다른 점을 낳고 그 점

13)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진쿠퍼, p.65~70

은 다시 또 다른 점을 반복하는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는 유심사상¹⁴⁾에 의한 것이며 객관적 대상이 있으므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있으므로 대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처럼 점은 인류에게 절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서 내적합일로 인도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지각적, 심리적 원형(原形, Archtype)이다.

점의 형상들은 인식의 기호로서 생성된 생명체로서의 의미 이기도하며 커다란 우주를 이루는 생명의 아주 작은 단위이다. 각각 다른 원들이 화면 안에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남으로 인해 조형적인 거듭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원(점)은 우주를 품고 있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며, 의식의 결정체로서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완성된 생명의 덩어리인 것이다. 흐리고 선명한 점들을 통하여 생성 이미지와 소멸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빛의 속력으로 간다 해도 태양까지는 8분쯤 걸리고, 은하수 끝까지는 수 만년, 마젤란 성운까지는 수십 만 년, 퀘이자까지는 수 억 년이나 걸린다. 이렇게 큰 우주이지만 아무런 거리가 없는 ‘하나’일 수도 있고, 빛에 끌리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주는 그대로 ‘한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주란 우리의 환상에 불과하므로 분별하여 만들면 무한하지만 분별을 멈추면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14) 유심사상 : 유심(唯心)은 일체의 삼라만상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상을 말한다. 오직 마음만이 있고 모든 대상은 마음에서 빚어낸 영상일 뿐이다. 유식학자들은 마음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세계를 마음이라는 주체에 의해 반영된 객관세계라 한다. 인간의 심성과 육체. 외부의 물질세계를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유심사상은 대체적으로 상(相), 성(性), 위(位)로 분류되고 있다.

나의 화면에서 부유하고 있는 형상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한 티끌이며 그 티끌들에 모두 세계가 들어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형상들은 관람자로 하여금 우주적 존재로까지의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역사 속 별그림

무덤의 별자리 그림 과 천문도에서 별을 나타낸 점들에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천체로서 인간에게 우주 속의 점 같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별자리를 표현한 천문도는 미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며, 단순함으로부터의 조화, 즉 간격의 좁고 넓은 조화가 형성된다. 하나의 위치에 또 다른 위치가 더해지면 새로운 규정이 이루어지고, 위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화해간다. 점의 반복은 간격이라는 특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게 눈에 띄게 된다. 이러한 별자리를 표현한 점들 속에 3차원적 공간이 느껴진다.

청동기 시대의 무덤 별그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 인접한 지역에는 세계고인들의 반 이상이 분포되어있다. 고인들은 우리 서사문화의 가장 중요한 유물이며, 우리 문명의 기원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이다. 고인들의 축조 시기는 남한에서는 서기전 약15세기경까지, 북한에서는 서기전 30세기까지 보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조선 시대에 해당된다. 고인들의 상당수는 무덤이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고인돌 덮개돌에 파여 있는 홈들이 일부의 경우 별자리라는

사실이 알려 지게되었다. 또한 충북 청원군 아득이 마을 고인돌에서 출토된 별자리 판에서는 북극 근처의 별자리 지도가 새겨져 있음이 발견되었다.¹⁵⁾

실제로 남한에서 확인된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는 북두칠성, 남두육성, 삼성, 묘수 등으로 모두 고구려 고분 별자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특히 고구려 고분 별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북두칠성이 고인돌에서도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고인돌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경상남도 기념물 제 183호

함안군 군북면 지역에는 동촌리 27기, 덕대리 5기 등 많은 수의 고인돌이 무리지어 있다. 동촌리의 고인돌 중 현재 원위치에 있는 것은 16

15) 박창법, 이용복, 이용조,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p 3, 2001

기, 이전된 것이 10기. 매몰된 것이 1기로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중 26호 고인들의 덮개돌에는 모두 398개의 알구멍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연결해 보면 마치 별자리를 나타낸 듯한 느낌을 준다. 알구멍을 만든 이유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풍년을 빌거나 자식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 별그림

고구려 벽화 고분의 별그림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북두칠성이다. 거의 모든 고구려 고분 별그림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북두칠성은 고구려인에게 가장 중요한 별자리였다. 남두육성과 삼성(전갈자리 일부)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농사와 관련하여 점성술적 의미를 지닌 묘수도 나타난다.

고구려 별그림에서 별자리의 방위는 별자리가 떠 있을때의 실제 방위를 따랐다. 북두칠성(北斗七星)¹⁶⁾을 북쪽에, 남두육성을 항상 남쪽에 그린 것이 대표적 예이다. 또 덕화리 2호분에 그려져 있는 28수의 방위가 각 계절의 밤봉에 보이는 별자리 순서로 방위를 지정했다. 북두칠성이 같고

16) 북두칠성(北斗七星) : 북극성 주변에 위치한 7개의 별로 국자모양을 하고 있다. 모두 2등 내외의 밝은 별이고, 그 폭이 20°에 이르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북극성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하늘의 운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점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중요시 되었으며, 비를 내리는 신으로 기우를 청하기도 하였으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재물과 재능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농사나 어업이 잘되기를 빌거나 재능이 뛰어나서 입신출세하고 과고에 급제하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칠성은 도교, 불교, 무속 등에서 다양한 모습등으로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칠성각이라는 전각을 세우고 칠성신을 불화로 모신다. 그리고 민간신앙에서는 도교의 도상에 따라 관모와 관복을 착용한 모습이나 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무속에서는 인간의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각별히 모신다.

리 모양으로(쌍영총), 남N자(안악 1호분 천정 서쪽), W자와 U자(덕흥리 고분 서벽), V자(쌍영○총 천정 동쪽) 별자리들이 있다.

고려의 무덤 별그림

현재 별그림이 발견된 고려 고분은 고려 정종의 안릉(949), 문종의 경릉(1083), 서삼동 고분(12세기초), 신종의 양릉(1204), 원종의 소릉(1274), 충목왕의 명릉(1349), 칠릉, 서곡리 벽화묘(1352), 공민왕의 현릉(1365) 등이다. 또 법당방 고분 수락동 고분 등 여러 고분에 12지상과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이중 안동시 서삼동 고분의 경우 천장에 28수의 별자리들을 빙 둘러 그리고 가운데에는 해와 달과 북두칠성을 그려 넣고 고구려의 고분 천문도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또 벽에는 사신도와 인물도가 그려져 있다. 경기도 파주군 서곡리 벽화묘는 고려말 권준의 무덤인데 천장에는 해와 달과 북두칠성과 삼성이 그려져 있고, 공민와 현릉에도 북두칠성과 두 개의 삼성이 그려져 있어 고인돌 시대와 고구려 시대의 별자리 선택과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의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더불어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라는 석각 천문도(天文圖)¹⁷⁾가 만들어졌다. 태조 4년에 제작되었는데 온 하

17) 천문도(天文圖) : 지상에서 관측한 성좌를 평면에 옮겨 놓은 것으로 여기에는 당시 천문학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천문도는 천체관측의 기본적인 좌표로 활용되었으며, 동시에 권위의 표상이었다. 조선 태조4년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본으로 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를 돌에 새겼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천문도의 기본으로 목판으로 제작, 인출하여 관료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민간에서 다수의 필사본이 조선후기까지 제작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서구천문학의 도입과 함께

늘의 별자리들을 새긴 석각천문도로서는 중국의 순우 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이 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이 천문도의 도설(圖說)에는 이 천문도가 원래 평양성에 있었으나 전쟁 중에 대동강에 빠져 유실되었던 석각 천문도의 인본을 옮겨 새긴 것이라고 적혀 있다.

천문도 중심부인 주극원 안쪽에서는 별자리 위치가 조선 초에 맞춰져 있고, 바깥쪽에서는 약 2000년 전에 맞춰져 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의 형상을 표현한 천문도인 셈이다.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숙종 때에 복각되었으며, 숙종본을 탐본한 탁본들과 필사본들이 사대부가에 지금까지도 다수가 전해 온다.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지식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통 천문 지식을 대표하였다.

하늘을 볼 때의 신비로움과 두려움, 우리 인간에 대한 의문들로 시작하여 별을 그리게 되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을 표현함에 있어 크고 작은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점들이 사용되었고, 별자리를 연결하기 위해 선을 사용하여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공간에서의 운동감이 느껴지며 회화적 관점에서도 뛰어나다.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오랜 세월로 마멸됨에 따라 숙종의 명에 따라 복각한 것으로, 관상감원 이민철(李敏哲, 1631~1715)이 담당했다. 1770년에는 태조 때의 것과 숙종 때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상감 내에 흙경각(欽敬閣)이라는 건물을 지어 나란히 보존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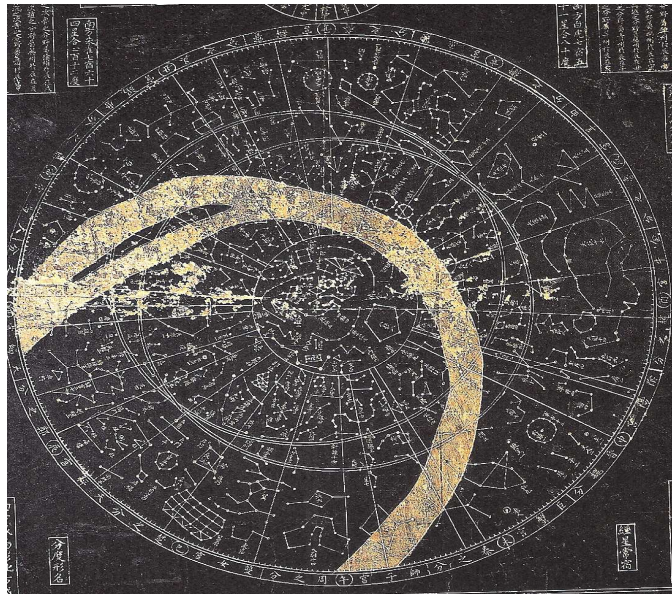
서양식 천문도가 유입되었다.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復刻天象列次分野地圖) 일부 확대

1687년 가로108.5 세로206.5 두께 30.2 보물 837호세동대왕기념관 소장

위의 복각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면 본인의 작품 일부를 보는듯하다. 수많은 점들은 모두 별을 나타낸 것이지만 본인의 작품에서 점은 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성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 가로86 세로13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황도북항성도(黃道北恒星圖)

조선후기 가로 20.5 세로28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에 새긴 황도북항성도로 별의 등급을 밝기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본래는 황도남항성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문도는 별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지만 점의 적절한 간격으로 크기가 다양하게 위치하고 별자리를 연결하는 선과의 조화로 조형적 아름다움을 준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점의 자유로운 배치로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였다. 천문도를 볼 때면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하늘을 볼 때의 감동을 화면에 전달한 것이다.

IV 작품 제작 및 분석

한자에서 ‘우주(宇宙)’의 우(宇)는 상하사방(上下四方)을 의미하는 공간 개념이며, 주(宙)는 주래고금(住來古今)을 의미하는 시간 개념이다. 따라서 우 와 주 를 합쳐 ‘우주(宇宙)’라고 하면 곧 시공간 연속체가 된다.¹⁸⁾

동양의 ‘우주’와 ‘세계’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개념이며 전체 생명이 깃들여 있는 환경이다. 우주적 직관(直觀)에 의해 표현되는 본 작업 역시 삶의 애환이 깃들여 있고, 희노애락(喜怒哀樂) 그리고 온갖 가치가 포함된 동시적 시공 개념의 세계이다.

우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가장 간단하게는 은하들의 대집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있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아주 먼 곳까지 관측을 한 결과 현재까지 은하보다 더 큰 천체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주란 은하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주의 구성원은 은하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수가 전문가들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한다. 제한된 자원, 제한된 식량 속에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과학의 발달이 끝없는 황금만능시대로 만들어 버렸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번성하여 끝없는 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기존질서의 파괴와 더불어 환경파괴까지 자행하고 있다. 투쟁과 경쟁으로 문명의 발전과 외형성장은 해 왔지만, 그 부작용으로 하늘도, 땅도, 인간도 병들어 가고 있다.

18)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울, 서광사 1993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붕괴하며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면서 캄캄하고 아무형태 없는 허공으로 변할 수도 있다. 150억년 전 어느 특별한 날에 우주가 태어나던 날이다. 바로 그날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없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팽창하면서 식어가자 우주공간에는 은하와 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별들 주위에는 행성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중 최소한 한 행성에는 특별한 화학적 과정들이 일어나 생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물음들은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음에서 오는 불안감이라 생각된다.

나에게 있어 점들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화면 안에서 사라지고 나타나는 반복을 통하여 존재의 속성인 유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물질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변화해 가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다.

점은 끝없이 이어지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 명료해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며, 크기가 각각 다른 점들이 화면 안에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남으로 조형적인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점은 우주를 품고 있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며,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의식의 결정체로서 모든 사물을 품고 있는 완성된 생명의 덩어리인 것이다. 흐려져 가는 원들과 선명한 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순간 나는 나의 생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나의 끝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은 나의 소멸에 대한 의문이며, 모든 존

재하는 것들의 영원한 숙제 인 것이다. 이러한 숙제를 풀어 나가는 의문점들의 방정식을 회화라는 공간에 표현해보는 것이다. 그러한 의문점들은 주변의 관찰로부터 시작되어지며, 관찰되어진다는 것은 주변의 물질들과의 교감을 뜻하는 것이고, 그 교감은 다시 자신의 창조와 표현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으로 자리매김 된다.

어두운 바탕에 점을 표현함에 있어 찍기와 스텐실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보기도 하였으나, 의도하지 않는 표현들이 나타나서 세필로 하나 하나 동그라미들에 농담을 조절하여 그렸다. 재료는 분채를 사용해 본 결과 한지의 흡수되는 성질로 점의 표현에 적절치 않아 아크릴 물감을 택하게 되었고, 그중 빛에 따라 달라 보이는 펄이 가미된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우주의 신비로움을 표현했다.

본 연구의 작품은 총 8점으로 구성되고 있다. 생명의 순환성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자 우주공간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최초의 요소인 점을 기본으로 하고, 중첩으로 울동감을 주어 변화무쌍한 우주를 표현하였다.

나에게 있어 반복이라는 의미는 생성, 성장, 소멸되는 순환적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면 전체에 짝 들어찬 시작도 끝도 없는 반복을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순환의 개념을 연상하게 된다. 우주 내에서는 모든 변화가 생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의 과정이 순환되면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 과정은 예외가 아니다. 크게는 기본적 가치관이나 전통이 소멸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현상, 주변 환경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현상, 그리고 작게는 한 개인의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사고 변화 등이 모두 생

성, 성장, 소멸이라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주공간을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크고 작은 원들을 율동적으로 배치하고 생동감 넘치는 선들로 별자리를 연결함으로써 창조력 넘치는 우주 공간을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다양한 색채의 점으로 우주의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

표현기법으로는 바탕에 뿌리기와 번지기를 이용하여 우주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그 위에 크고 작은 점으로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재료는 장지를 사용하여 번지기를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우주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검정색은 동양의 재료인 먹을 사용하였으며, 화면에 가득 찬 점들은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달리 보이는 효과를 위해 펄이 가미된 아크릴을 사용하고, 물로 농담을 조절하여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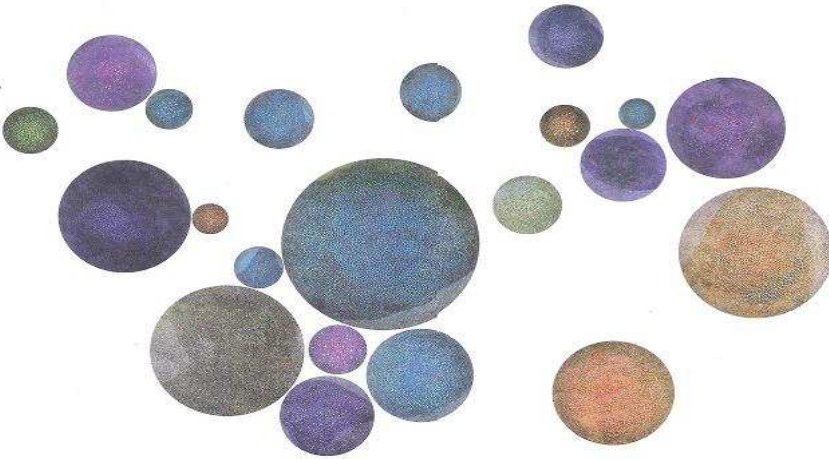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마블링 기법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분채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적절하지 않았다. 다양한 색채로 우주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색이 다양한 아크릴물감을 택하게 되었고, 붓을 이용해 동그라미(점)을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먹,한지,아크릴 재료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아크릴 물감이 겹도는 현상이 생겼다. 본인은 재료에서 오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숙제이며,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의 시각적 재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인식의 확장을 꾀하며 더 나아가 전우주의 특성이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¹⁹⁾라는 깨달음에 다다른 길

19)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 불교의 근본사상, 만물은 잠시 동안도 하나의 모양으로 머물지 않고 변하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위하며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던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바라는 것이다.

작품 1) 「소중한 사람들=생성」

하늘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 비밀이 조금씩 벗겨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이고 신비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끝없는 하늘에 은가루를 뿌린 듯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의 무한한 공간 우주를 바라보면서 옛 부터 인간들은 황홀한 신비감에 빠져들어 이름 모를 별들을 서로 연결시켜 재미있는 별자리를 만들기도 하였고 별과 인간의 운명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점성술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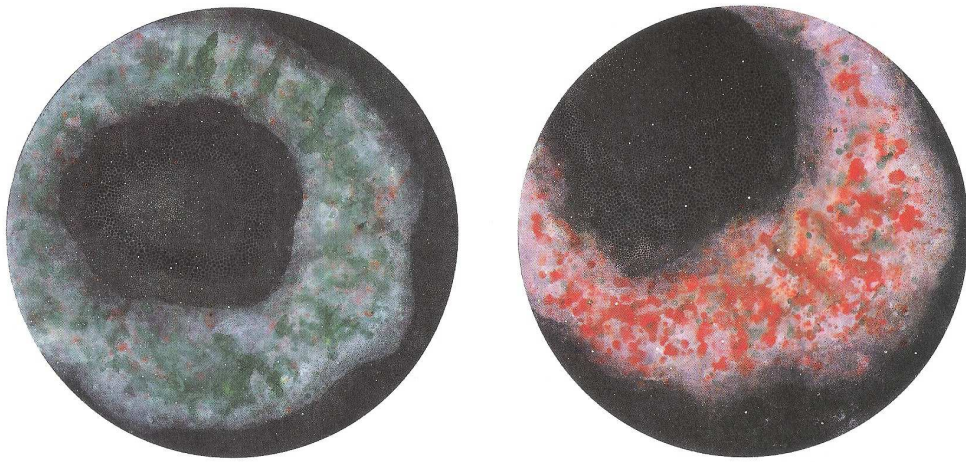


소중한 사람들=생성 500×200cm 2003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의 둥근 화판으로 생명체라는 것은 단일개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였다. 무

한한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검은 바탕위에 무수히 일어나는 무질서한 혼돈의 상황을 크고 작은 점들로 표현하였으며, 별자리를 나타내는 선들로 생성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별자리들은 본인이 자유롭게 점들을 연결하여 별자리를 생성시킨 것이다. 즉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별자리인 것이다.

배치하는 방법은 벽면에 각각 작품들을 형태, 크기, 방향에 따라 우주에 떠 있는 별들로 연상될 수 있게 함으로서, 관람자로 하여금 마치 생성 에너지가 넘치는 동경의 대상인 우주 한가운데 있는듯함을 의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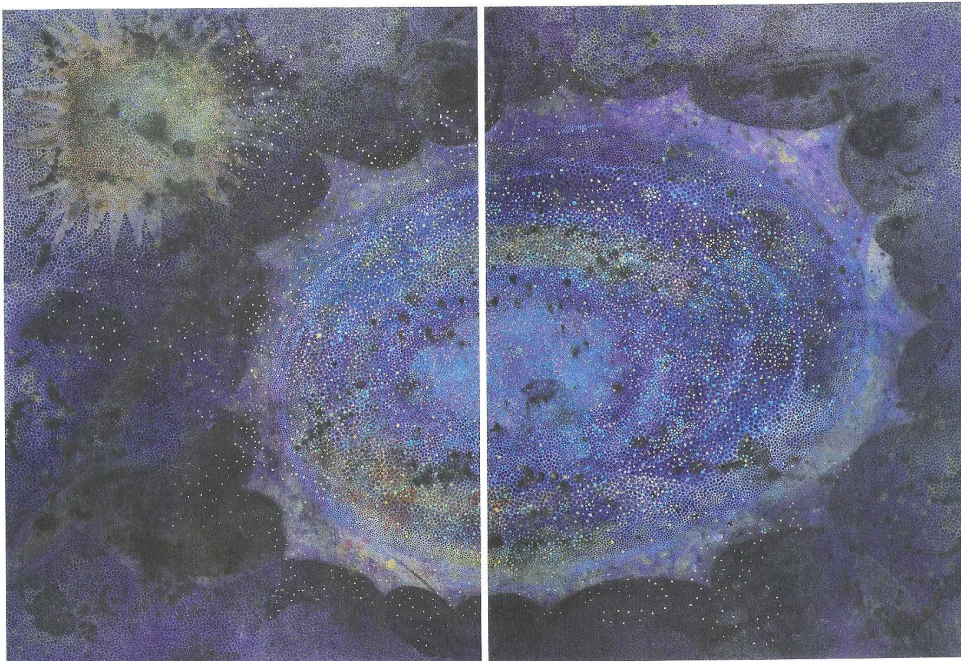
피할수 없는 힘 = 소멸 234×117cm 2003

작품 2) 「피할 수 없는 힘=소멸」

이 작품은 블랙홀이 가져오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생성과 소멸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생멸하는 무상한 존재임에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이라 볼 수도 있다. 물질마다 고유한 에너지들이 존재한다. 그 고유한 에너지들은 사라지는 순간 블랙홀처럼 생성의지를 보여준다. 본인 또한 영원함을 바라고 있음은 숨길 수 없으며, 그 보다 더 작품에 영원함의 순환의지를 부여해 본다.

초록색과 붉은색 물감을 자유롭게 뿌려서 사라지는 순간마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검은색 점들 사이 밝고 작은 점들로 생명의지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이중성 또한 볼 수 있다.



마지막 빛=생성 250×165cm 2003

작품 3) 「마지막 빛=생성」

동양화의 표현 양식인 발목을 사용하여 빛이 존재하지 않은 우주를 먹으로 어둡게 표현함으로 삶과 죽음의 장으로 표현하였다. 커다란 덩어리의 폭발과 동시에 작은 덩어리로의 에너지 흐름을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작은 점들이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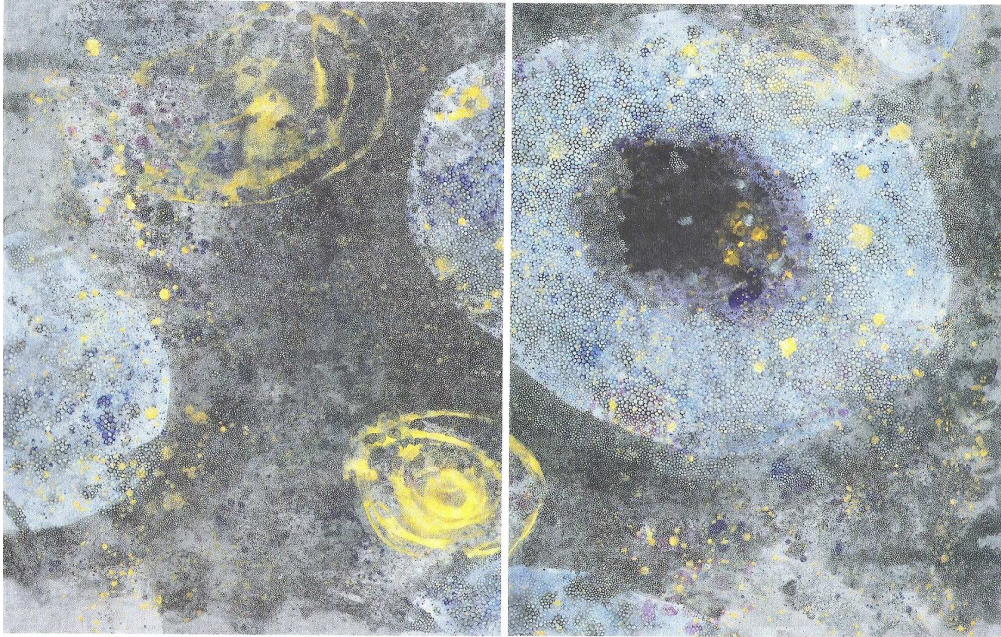
별이 폭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사라져간다. 폭발 후 잔해들로 인해 별이 탄생됨을 여러 가지 빛깔로 표현하여 사라짐의 아쉬움보다 생성의지의 생명 순환의미를 극대화 시켰다. 여기 저기 흩어진 검은 덩어리들은 폭발로 떨어져 나가는 언젠가 별의 탄생에 사용될 생명의 조각을 의미한다. 또한 폭발하는 순간을 까만 어둠속의 빛으로 표현한 것에서,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본인의 의지를 담아보았다.

작품 4) 「어둠의 이끌림=소멸」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무에서 유가 창출되고,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순환작용은 생명의 한 속성일 뿐이다. 영원한 육체적 생명은 불가능 하지만, 끝이 없는 우주에서 본인은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다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옥색 작은 점들 아래 비춰지는 노란 덩어리들은 다양한 율동성을 갖고 있으며 암흑의 우주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의 흐름이기도 하고, 인간 역시 우주 속으로 부유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적 표현 이다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물감을 뿌리는 행위는 생명 순환에서 소멸에 속



어둠의 이끌림=소멸 250×165cm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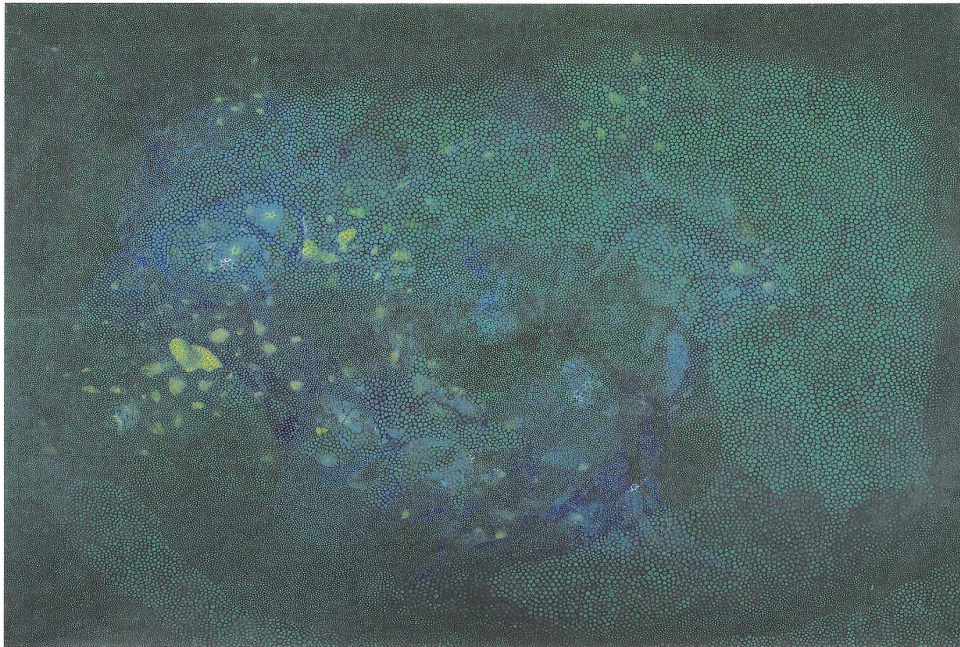
한다. 본인의 손을 거쳐 붓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내면에 존재하던 생명 순환 이미지가 화면에 전이 된 것이다

작품 5) 「조용한 움직임=생성」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작품이다. 나는 미시적 존재, 물질적 현상인 나를 찾아감에 있어 육신을 근거로 미시적 세계의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의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조 개의 세포 하나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전체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각각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의 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포는 아주 작은 분자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자는 다시 원자로 원자는 소립자의 결합으로, 소립자는 쿼크의 결합으로, 쿼크는 1996년 2

월 미국의 페르미연구소에서 데바트론을 이용해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정면으로 충돌시킨 결과, 쿼크가 또 그 내부구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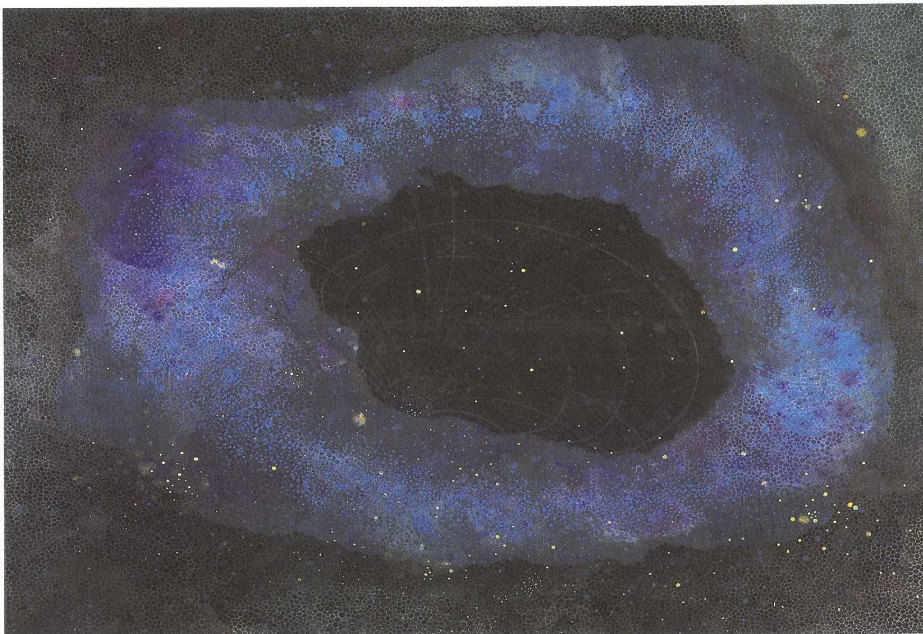
이렇듯 나의 몸은 실재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별이 폭발한 후 생긴 초신성 잔해 가스가 식어서 새로운 별을 만드는데 쓰이는 것처럼, 변화 없는 무한한 점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며, 그 안에 비춰지는 형태들은 나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조용한 움직임=생성 162×130cm 2003

작품 6) 「무한의 힘=소멸」

검은 구멍이라고도 하는 블랙홀은 A.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블랙홀의 생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력한 수축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는 약 200억 년 전 우주가 대폭발로 창조될 때 물질이 크고 작은 덩어리로 뭉쳐서 블랙홀이 무수히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주 대폭발의 힘으로 태어난 블랙홀을 원시 블랙홀이라고 한다.



무한의 힘= 소멸 162×130cm 2003

별도 무한대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스로 시작하여 계속 연소하면서 밀도가 큰 가스로 바뀌는 생명 순환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블랙

홀로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블랙홀 뒤에는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있다고 인간은 상상하는데 블랙홀이 빨아들인 에너지를 다시 뱉어내는 반대 개념의 홀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빨아들임과 토해냄이 있다면 내가 늙는 것만큼 우주어디에선가 더 젊어지고 있는 나의 환상이 있다는 꿈을 꾸다.

이 작품에서의 시작도 끝도 아닌 블랙홀은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별의 탄생을 위한 힘을 뱉어내는 생명 순환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7) 「힘의 이동=생성」

기하학에서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따라서 개념상 이것은 비물질적인 본질이라고 정의되어야겠다.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 점은 제로와 같다. 나의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점들은 무에서 생성된 유이다. 존재이면서 비존재들은 무한한 우주의 진공을 꿰뚫고 지나가며 움직여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주위의 생명력을 모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주의 강한 운동력을 표현한 것이며, 그 중심의 별 형태의 덩어리는 화면 전체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준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주로 자기의 정신과 쉬지 않고 활동하는 만물을 좁은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다.



힘의 이동=생성 120×90cm2003

이 작품에서 공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전체이다. 무한한 전체를 채우고 있는 이들 존재가 공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광대하고 끝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영역은 본인의 경험으로 얻어진 추상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 속에서 생명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V. 결 론

현대 물질문명 속에 우리의 존재 근원을 이루는 생명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낳게 되며, 이를 계기로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순환의 현상은 본인으로 하여금 인간존엄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명 인식에서 근원하여 자연 순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인식되는 유기적 관계에서 미적 요소를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생명의 순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전체성, 완전성, 동시성, 근원(根源)성을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조형요소인 점을 이용하여 삶과 죽음의 현상 속에 끝없이 반복되는 생명 순환의 의미를 극대화 시켰다.

본인 작품들은 거시적 표현을 했지만 그 속에 미시적인 형태들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미술이란 것의 존재방식은 거시적으로는 우주와 소통이 되며 미시적으로는 의식의 심층에 까지 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것은 사회 비판성, 소외로부터의 복귀 이러한 문제로서 회화가 가지는 힘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도구는 내 자신의 성찰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는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며 그 안에는 무수한 수준의 기관이 들어있다. 각 수준의 유기체는 같은 수준의 유기체와 무단히 상호 작용한다. 더 나아가 개인의 환경은 사회이며 사회는 생태계를, 생태계는 생물권을, 생물권은 전 우주를 그 환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기체적 우주관에서는 인간

은 궁극적으로 전 우주와 부단히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우주와 함께 공동 진화 한다는 것이다.

본인 작업에서 존재의 속성인 생성과 소멸의 인식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나 반복의 행위 적인 유형의 비슷한 유의 작업들과 표현의 차별성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개성 있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더욱 찾아야 할 것이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 법칙에 대해서도 사고의 폭을 넓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의 시작과 전개, 마무리 과정에서 얻은 체험은 인간의 정신적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점이라는 입자의 유동적인 성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형식적인 표현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함으로서 고정적인 개념을 벗어날 것이며, 다양한 색채 표현을 더욱더 연구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가다야마야수히사 저, 「양자역학의 세계」, 김명수 역, 전파과학사, 1979

김성규,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 과학과 사상, 1990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울, 서광사, 1993

G.주커브, 「춤추는 물리」, 김영덕, 범양사, 1993

W.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1987

소광섭,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아니엘라 야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역, 열화당, 1995

조경철, 「우주의 신비」, 시청각교육사, 1977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학위논문>

김명진, 「확장된 점을 통한 생성-소멸의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예술대학원, 2002

박창법, 이용복, 이용조,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2001

이영일, 「시지각의 중심성에 의한 숭고의미 표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2

<정기간행물>

「과학동아」, 2003년, 2월호

「신학전망」 143호, 2003년, 광주 카톨릭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of vital circulation through a dot
– focusing on my work–**

**Eunhwa kim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world continues to move and change. Nature also changes and man in it also continues to change his own shape. The lives of nature and man experience the circulatory process of generation and extinction by themselves moving together with the whole nature.

A living thing is a part included in the gigantic organism of the universe itself and simultaneously has all its whole attributes, which are understood as generation and extinction. I explored the identity of reality by interpreting it as the phenomenal image that generation and extinction, the attributes of a living thing, are endlessly repeated.

Natural forms which are small spaces in reality were created with dots regardless of their sizes. That is, they are a complex of

geometric dots floating in geometric infinity in their own ways in various regular shapes. Purely centrifugal forms which are smallest and closed in themselves look dots in a loose relation when we see them with the naked eye in defenseless condition. However, they have fertility resting potentially in their insides. Also in the natural world, a dot with full possibility essentially regresses to itself.²⁰⁾

A star as if to be eternal also comes to an end in explosion getting fully bulky in due time. But it does not finish completely. The remains after its explosion become either a neutron star or a black hole. Gases spread extensively become the source of a new star. The truth of 'An end is another beginning' is also applied as it is to the vast universe.

I applied vital circularity to what directly affects the birth of a new star from the remains. I accepted into painting space the various cosmic phenomena such as explosion and birth of a star, a constellation, a black hole²¹⁾ and so on with repeated dots for the image and with lines of connecting constellations with each other.

20) W.Kandinsky(1987). A Dot, A Line and A Plane, translated by Bonghee Cha. Seoul : Yulhwadang.p.31

21) black hole : As a heavenly body predicted by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it means the one with greatly increased density and gravity when the radius at the time of a star exploding extremely reduces to Schwarzschild's radius or less. The escaping speed required to remove the gravity is greater than the speed of light, preventing light from escap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theory that numerous black holes came into being by matter massed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in the big bang.

Methodologically, I formed the aesthetic relationship among concentration, attention, and rhythm by putting all sorts of dots with a thin brush from acrylic paints to which tones are added in order to fantastically express the image of cosmic space, and studied the method of having the movement of generation and extinction felt by producing infinite space by painting a ground in Chinese ink.

However, the most difficult problem was to harmonize the cold feeling from the material of acrylic with Oriental warm atmosphere of Chinese drawing paper. Therefore, I had many difficulties in expressing vital image, various cosmic phenomena, and unreal forms, which were in my brain. I think that they are a pending question for this researcher to have to settle in the future.